

■ 2023년도 우리가치 인문동행 사업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우리가치 인문동행 사업 인문프로그램 운영기관 공모
- 회의일시 : 2023. 6. 20.(화) 14:00~17:00 / 2023. 6. 26.(월) 13:30~18:00
- 회의장소 : 충청로 회의실

2023년 우리가치 인문동행사업은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인문 가치 확산을 위해 자존감 회복을 돕고, 위로와 치유, 사회 활력 제고 및 사회적 연대감 회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23년 5월 11일(목)부터 6월 9일(금)까지 28일간의 지원신청기간 중 동 사업 인문프로그램 운영기관 공모에 총46건이 접수되었으며, 행정결격사유가 있는 2건(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 신청)을 제외한 총44건이 지원심의회의에 상정되었다.

본 사업의 지원심의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 심의 등 2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심의에 상정된 사업들은 대체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게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존감 회복을 돕고, 위로와 치유, 사회 활력 제고 및 사회적 연대감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었다.

6월 20일(화) 진행된 1차 서류심의회에서 우리 심의위원들(5명)은 사전에 고지된 심의 기준대로, 사업수행역량(30점), 사업목적의 부합성 및 사업계획의 충실성(40점), 파급효과(30점)를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본 사업에 적합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신청사업들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한정된 지원예산에 따라 우선 1차 서류심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2차 인터뷰 심의대상을 선정하였다.

- 1) 신청기관(단체)의 특성이나 전문성에 따라 수강대상을 1~2개 계층으로 최대한 특화하고 일반 국민 보다는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취약계층을 위해 기획 신청한 사업
- 2) 사회취약계층에게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등 인간의 삶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인문학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인간의 가치관과 윤리관을 형성하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개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 3) 강좌가 강연이 위주가 되는 형태이기는 하나 질의응답 등 수강생과의 소통 및 참여를 강화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사업 등

이상 3가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서류심사를 진행한 결과, 총44건 중 21건(선정률 47.7%)을 2차 인터뷰 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6월 26일(월) 진행된 2차 인터뷰 심의에서는 1차 서류심의에서 통과한 총21건을 대상으로 별도의 추가자료 제출 요구 없이 신청단체 소개와 신청사업에 대한 설명, 심의위원 질의응답으로 신청단체별로 총10분간 진행되었는데, 심의위원 질의는 주로 강좌의 주제·내용·참여강사 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과 합리성, 수강생 모집의 구체성,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합리성 등에 집중되었다.

2차 인터뷰 심의에서는 심의회의에 상정된 21건 중 총17건을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원대상 선정과 함께 지원대상 단체별 지원액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예산편성 세부기준을 근거로 산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성과 제고를 위해 지원신청액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예산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 관련 직접경비 외 항목(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등)과 중복 과다 편성된 예산 등을 제외하고, 신청사업 내용과 규모에 따라 최소 5천만 원부터 최대 7천만 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책정하였다.

우리는 미국 작가 얼 쇼리스(Earl Shorris)가 1995년 설립한 빈곤층을 위한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인 클레멘트 코스(Clement Course)를 잘 알고 있다. 클레멘트 코스는 빈곤층에게 인문학을 가르쳐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클레멘트 코스는 1년 과정으로, 문학, 역사, 철학, 과학, 예술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고, 강좌는 모두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은 교수와 동료 학생들과 함께 텍스트를 읽고 토론하며 자신의 생각을 나눈다. 클레멘트 코스는 빈곤층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는 최초의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빈곤층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023년 우리가치 인문동행사업도 세계적으로 성공한 클레멘트 코스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취약계층들에게 각종 인문학 강좌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의 통합을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3 우리가치 인문동행 사업 인문프로그램 운영기관 공모 지원심의위원 일동